입시CUBE

08 2027학년도 수시

내신 3등급,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

남은 길을 세어 봅니다

-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숫자부터 2

02 무엇을 세는 표인가 3

03 가장 값이 큰 한 가지 4

04 그래서 무엇을 5

05 자주 묻는 것 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내신 등급별로 **작년 컷 안에 드는 자리가 몇 %인지** — 3.0에서 교과 38% · 학종 58%
- **이 표를 잘못 읽으면 위험한 세 가지** — 자리 수이지 가능성이 아닙니다
- **「3등급」도 네 가지입니다** — 고르게·주요 과목만·3학년에 오른·수능이 강한
- 지금 가장 값이 큰 한 가지 — **반영 과목만으로 등급을 다시 계산하는 일**

01 · 숫자부터

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좁아진 것입니다

> **「3등급이면 수시는 안 되는 거죠?」**
> 상담실에서 이 말을 하실 때 대개 **이미 답을 정해 놓고** 오십니다. 그런데 숫자를 세어 보면 다릅니다. **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좁아진 것**이고, **좁아진 정도가 갈래마다 다릅니다.**

작년 70%컷을 공개한 자리 가운데 **내신 3.0등급이 그 컷 안에 드는 자리**가 얼마나 되는지 세었습니다.

내신	교과에서	학종에서	견주면
2.0	77%	**89%**	
2.5	60%	**76%**	
3.0	38%	**58%**	**여기가 이 글의 자리입니다**
3.5	19%	**39%**	
4.0	10%	**21%**	

3.0등급에서 교과 38%, 학종 58%가 남습니다. **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, 절반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.**

그리고 **학종이 교과보다 20%p 더 열려 있습니다.** 3등급에서 **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**가 이 한 줄에 있습니다.

여기에 **논술이 따로 있습니다.** 논술은 내신을 거의 안 보고, 요강에 「논술100」이라 적힌 자리가 **476줄**입니다. **내신이 아예 세어지지 않는 자리**입니다.

출처: 어디가 전형결과(대학 제출) 2026학년도에서 70%컷을 공개한 교과 2,799줄 · 학종 3,967줄을 저희가 집계. **이 표는 「자리가 몇 개인가」이지 「붙을 가능성」이 아닙니다.**

02 · 무엇을 세는 표인가

오해하기 쉬운 자리

앞의 표를 **잘못 읽으시면 위험합니다.** 세 가지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.

하나 — 「자리 수」이지 「가능성」이 아닙니다

3.0등급에서 학종 자리의 58%가 남는다는 것은 **그 자리들에 원서를 낼 만하다**는 뜻이지 **58% 확률로 붙는다**는 뜻이 아닙니다. **그 자리마다 경쟁이 따로 있습니다.**

둘 — 컷은 하한이 아닙니다

앞서 보신 대로 **70%컷보다 낮은 성적으로 붙은 합격자가 늘 있습니다.** 그러니 이 표는 **실제보다 좁게 잡은 것**입니다. 컷 위쪽만 세었으니 **보수적인 값**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셋 — 3등급도 여러 가지입니다

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**같은 3.0등급도 생김새가 다릅니다.**

어떤 3등급인가	여기서 유리한 자리
고르게 3등급	학종 · 논술 — 교과는 반영 과목을 골라도 안 달라집니다
주요 과목만 좋은 3등급	**교과** — 반영 과목을 적게 보는 곳을 고르면 등급이 올라갑니다
1·2학년이 낮고 3학년이 오른	**학종** — 흐름이 읽힙니다. 학년별 가중을 두는 교과도 봅니다
수능이 강한 3등급	**논술** · 최저 있는 교과 — 최저로 경쟁자가 걸러집니다

「3등급」이라는 한 낱말로 자기 자리를 정하지 마십시오. 네 가지가 전혀 다른 전략을 씁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어디가 전형결과. 갈래 나눔은 저희 판단입니다.

03 · 가장 값이 큰 한 가지

반영 과목을 다시 세는 일

지금 이 시점에 **가장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 일**이 하나 있습니다. 공부를 더 하는 것도, 활동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. **반영 과목만으로 내 등급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**입니다.

교과 전형은 **반영 과목이 대학마다 다릅니다.**

이런 곳이 있습니다	3등급 학생에게
전 과목을 반영	성적표의 등급이 거의 그대로입니다
국·수·영·탐만 반영	다른 과목이 **통째로 빠집니다**
계열 관련 과목만 반영	내 강한 쪽만 세어질 수 있습니다
상위 몇 과목만 반영	나쁜 과목이 **안 들어갑니다**
학년별 가중을 둠	3학년이 올랐다면 **유리해집니다**

같은 성적표로 계산한 등급이 대학마다 다르게 나옵니다. 전 과목 3.2등급인 학생이 어떤 대학의 반영 방식으로는 2.8이 되기도 합니다. **공부를 더 하지 않고 등급이 올라가는 유일한 자리**입니다.

이 계산은 **성적표와 요강만 있으면 집에서** 하십니다. 학과 하나에 십 분쯤 걸립니다. **열 곳을 계산해 보시면 하루가 안 걸리고, 그 하루가 등급 하나만큼의 값**을 합니다.

남은 학기가 있다면

아직 학기가 남았다면 **반영 비중이 큰 과목**부터 챙기십시오. **모든 과목을 고르게 올리는 것보다, 세어지는 과목을 올리는 편**이 효율이 몇 배입니다. 어느 과목이 세어지는지는 **요강에 적혀 있습니다.**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학생부 반영 방법. 반영 과목·비중은 대학마다 다르니 요강 원문을 확인하십시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남은 길을 세는 차례와 점검표

3등급에서 하실 일은 **넷**입니다. 순서가 있습니다.

차례	무엇을	무엇이 달라지나
1	**반영 과목별로 다시 계산**합니다	등급이 바뀌는 곳이 나옵니다
2	**수능최저**를 맞출 수 있는지 셉니다	맞추면 문이 크게 넓어집니다
3	생활기록부에 **읽힐 것**이 있는지 봅니다	있으면 학종이 주력이 됩니다
4	**논술**이 맞는지 시험해 봅니다	맞으면 내신이 안 세어집니다

2번이 3등급에서 가장 크게 판을 바꿉니다. 교과의 69%, 논술의 73%가 최저를 겁니다. **최저를 넘기는 3등급은 못 넘기는 2등급보다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.** 최저에서 걸러지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.

4번은 「해 보는 것」이 유일한 방법입니다. 논술이 맞는지는 **기출 문제를 한 번 써 봐야** 압니다. 성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. 한 번 써 보고 정하십시오 — **맞으면 내신이 세어지지 않는 문이 열리고, 안 맞으면 그 시간을 최저에 쓰시면 됩니다.**

지금 하실 여덟 가지

- [ ] 목표 대학 **열 곳** 의 반영 과목을 적어 보았는가
- [ ] 반영 과목별로 **내 등급을 다시 계산** 해 보았는가
- [ ] 등급이 **올라가는 곳** 이 있었는가
- [ ] 모의고사로 **내 최저 합** 을 세어 보았는가
- [ ] 최저를 **한 등급 올리면** 자리가 얼마나 느는지 보았는가
- [ ] 생활기록부를 **통째로 읽어** 보았는가
- [ ] 논술 기출을 **한 번 써** 보았는가
- [ ] 여섯 장을 **세 갈래에 나눠** 놓았는가

여덟 가지 가운데 **돈이 드는 일은 없습니다.** 요강·성적표·기출문제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**이 시기에 학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작습니다.** 3학년 한 학기로 내신 등급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— 이미 쌓인 학기가 많기 때문입니다. 같은 힘을 **수능최저**와 **반영 과목 다시 세기**에 쓰시면 **훨씬 확실하게 자리가 늘어납니다.** 앞의 표에서 보셨듯, 최저 한 등급이 문을 20%p씩 넓힙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3등급 학생과 학부모님의 질문

Q. 재수를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?

저희가 정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 다만 **계산해 보실 것**은 있습니다.

재수로 바뀌는 것은 **수능**입니다. **내신은 바뀌지 않습니다.** 그러니 재수는 **정시로 가는 길**을 넓히는 선택이지, 수시를 다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.

그렇다면 물음은 이렇게 바뀝니다. **「내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곳이, 지금 수시로 갈 수 있는 곳보다 나은가.」**

이 물음에 답하시려면 **지금 수시로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세어 보셔야** 합니다. 앞의 넷을 다 해 보시고, 그래도 남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드실 때 **그때 하실 이야기**입니다. 세어 보기 전에 정하지 마십시오.

Q. 3등급인데 상향으로 여섯 장을 다 쓰면 안 되나요?

쓰실 수는 있습니다. 다만 무엇을 거는지는 아셔야 합니다.

수시에 **한 곳이라도 최종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** 그러니 여섯 장을 다 상향으로 쓰는 것은 **「다 떨어지고 정시로 간다」를 계획으로 삼는 것**과 같습니다.

그 계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. **수능이 강한 학생에게는 합리적입니다.** 다만 **그것이 계획이라는 것을 가족이 함께 알고** 계셔야 합니다. 12월에 여섯 장이 다 떨어졌을 때 **「예상한 일」인 것과 「무너진 일」인 것은 남은 두 달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.**

그리고 **정시로 갈 수 있는 선**을 미리 세어 두십시오. 그 선이 상향으로 쓴 자리들보다 낮다면, 여섯 장 가운데 **몇 장은 정시 선보다 나은 자리**로 채우시는 편이 낫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3등급에서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**셈**입니다. **남은 자리를 정확히 세어 보십시오.** 생각보다 많고, 갈래마다 다릅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요강과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. 개별 대학·학과의 합격선은 싣지 않습니다. 「열린 자리」는 작년 70%컷을 공개한 곳만 센 값이며 **합격 가능성이 아닙니다.**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